

2017.5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7년 5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문화방송(주)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사	
2017.5.30	대전MBC 대회의실	7/10	6	

○ 시청자위원 불참자(명) 명단 : 신종성, 이상진, 김종문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대표이사, 오승용 경영기술국장, 장래균 편성제작국장, 최혁재 보도국장, 김미리 사업국장, 우경수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6	7	-	1	14	-	14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9	2	3	14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4건	4건	4, 5 6월
보도	시사토론프로그램 출연자 토론 시간안배 필요	시사토론M “문재인 정부의 과제(5/7), 대전세종 공약점검(5/14), 충남공약점검(5/21)” 등 출연자 간 토론시간 안배를 함	5월
교양	교양정보프로그램에서 소외계층, 다문화 가정계층을 보다 많이 다루어지길	아침이 좋다 프로그램 “전국장애학생 체육대회(5/23), 시골폐교의 어린이(6/5)” 등 다룸	5, 6월
교양	캠페인 내용 문구 사실에 맞게	라디오 금강보호캠페인, 청소년캠페인 TV청년희망캠페인 등 내용 확인, 협찬 고지 등에 어긋나지 않게 제작	5월
보도	선거홍보캠페인 방송 이외에 적극적으로 널리 알리길	선거홍보캠페인 웹툰(방송툰) 지역사 신문 홍보기사 배포, 블로그 활용	4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없음	회의 내용 및 처리결과	홈페이지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임기: 2017. 5. 01. ~ 2018. 4. 30.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위원장	신성철	KAIST총장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과학기술단체	신임
	송길현	목요언론인클럽 고문	목요언론인클럽	언론관련단체	신임
위원	김종문	한화생명 충청지역본부장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신임
위원	함진호	ETRI 표준연구본부 책임연구원	ETRI	과학기술단체	신임
위원	정철상	호서대학교 청소년문화상담학과 교수	(재)청소년과 사람사랑충남지회	청소년단체	1회 연임
위원	이상진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충남연구원	문화단체	1회 연임
위원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한국방송학회	언론관련단체	1회 연임
위원	강은혜	대전YWCA 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대전YWCA	소비자단체	1회 연임
위원	신종성	골프존 네트워크 대표이사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1회 연임
위원	김은주	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신임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 (5월)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교양	<p>5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뉴스&정보에서는 <신용등급>관련정보, <홈쇼핑 똑똑하게 이용하기>, <자외선차단> 등 주부들이 궁금해 하는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해 주는 것 같아 좋다. 그런데 15일에 방송된 <저작권>에 대한 정보에서는 주부들이 저작권이라는 아이টে에 대해서는 그다지 유용하게 받아들일지 좀 의문이었다. 저작권침해 사례는 도움이 되겠지만 저작권의 역사나 보호기간, 저작권법 시행령개정법 등의 내용을 다루는 게 약간은 지루하였고 오히려 저작권 침해 사례를 많이 이야기하고 유의해야 하는 부분을 더 많이 다뤄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리고 육아맘들을 위한 자녀양육정보나 자녀들과 함께 가볼만 한 곳 5월은 가정의 달로 행사도 많이 했었는데 그러한 내용들도 정보 제공도 해주었으면 한다.</p> <p>생활경제도 주부들에게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서 좋다. 특히 이번 달에 방송된 <우리집 발전소, 미니태양광>과 <친환경 전기자동차> 정보는 환경을 살리면서도 경제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내용들이어서 좋았다. 앞으로도 다음세대를 위해서는 환경을 살려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의무인데 방송에서 이러한 정보들은 주부들이 환경도 살리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아이টে으로 많이 구성해 주시면 좋겠다(강은혜).</p>	<p>좋은 의견에 감사하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생활정보, 지역 화제, 미담, 문화 등 다양한 소재를 담은 버라이어티 정보 프로그램이다.</p> <p>주시청자가 주부들이므로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작진이 노력하고 있다.</p> <p>정보를 다루는데 있어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의 중요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앞으로도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고언을 많이 부탁한다.</p>			
교양	<p>시사플러스에서 ‘문재인 정부, 지역 현안 어떻게 해결할까?’“(5/18)를 주제를 다루었다. 대전시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담담히 전달하였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단면적으로 보여준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다음에 대전MBC 시사플러스에서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개념정의와 학계의 전망, 다른 나라나 시도의 대응책 등을 자세히 다루어 주면 좋겠다(김은주).</p>	<p>4차 산업혁명은 시대의 화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전시를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육성할 계획을 약속했으며 지난 8일 대전시는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선포식을 가졌다. 한국의 실리콘밸리인 대덕연구단지구가 있는 대전시는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시사플러스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대덕연구단지, 그리고 대전시의 역할에 대해서 후속 취재를 하겠다.</p>	○		

교양	<p>유명 정치인인 정봉주씨 섭외해서 인터뷰한 점이 돋보였다(시사플러스 5/2). 같은 시간 대 경쟁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시사예능을 논하면서 JTBC의 ‘썰전’ 자료화면을 보여준 점도 좋아보였다.</p> <p>정치와 우리 생활이 직접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을 토대로 실제로 생활 속에서 월평동 화상경마장 폐쇄(이전)라는 현안을 가지고 1인 시위, 퍼포먼스 등 활동을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젊은 사람들의 모습을 자세하게 보여준 점이 신선했다. 그러나 토론 내용이나 활동 준비 과정을 너무 자세하게 보여줘서 종반에는 긴장감이 깨지고 조금 지루한 면도 없지 않았다(김은주).</p>	<p>관심있게 시청해 주어서 고맙다. 5/2일자 시사플러스는 정치가 왜 중요하고 일상생활과 얼마나 밀접한가 그런 의도로 출발했다. 기존 틀과는 다르게 구성을 하고 재미있게 다가가고자 노력했다.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정진하겠다.</p>		
보도	<p>시사토론M (5/21)에서 <새정부에 바란다-대전, 세종 공약점검1,2>을 다루었다. 기획의도는 좋았으나, 내용이 어려워 끝까지 보기가 쉽지 않았다. 중간 중간에 세부 토론주제에 대해 자막을 넣어주면 조금 더 지루하지 않게 볼 수 있었을 것 같다(김은주).</p>	<p>시사토론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거의 모든 질문에 세부 토론 주제와 관련한 자막을 넣고 있다. 다만, 공약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다보니 4차 산업혁명 등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 있어 개념 설명 등에 특별히 신경을 썼다.</p>	○	
교양	<p>“전국이 보인다(5/28)”에서는 다채로운 지역축제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정선에 있는 축제장에 다녀온 모습이 나왔는데, 현장감이 살아 있어 재미있게 잘 보았다. 리포터가 편안하게 진행을 잘했다. 화면상으로 볼 때 축제장은 좀 썰렁해 보였는데, 음식이 다채롭게 잘 나왔고, 리포터도 진행을 잘해서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단양의 쌍둥이축제도 재미있게 보았다. 실제로 전국의 축제장소를 모두 방문할 수는 없는데, 집에서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어 참 좋았다(김은주).</p>	<p>‘전국이 보인다’는 지역 MBC 16개사가 공동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공동 제작 프로그램의 장점은 각 사의 명예를 걸고 선의의 경쟁을 한다는 것이다. 이런 선의의 경쟁으로 좋은 품질의 콘텐츠가 시청자들에게 전해진다.</p>	○	
보도	<p>‘부동산 열기 후끈, 투자설명회 초만원’(5/29) 보도 기사에는 ‘LH 투자설명회에 구름인파가 몰렸다’라는 표현을 하였다. 이 기사가 뉴스 아이템으로 적정했는지, 표현이 과하지 않았는지 혹은 뉴스 가치 관점에서 적정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LH 홍보기사로 오인할 수 있겠다. 홍보성 기사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이승선)</p>	<p>언급하신 리포트는 대선 이후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세종시와 주변 지역 부동산에 대한 상황을 가능할 수 있는 사안 이어서 제작하게 됐다.</p> <p>해당일 TJB대전방송도 리포트로 제작했다. LH를 홍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앞으로 공공기관 홍보 기사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 주의 하겠다.</p>	○	
보도	<p>‘군인이 미아 가족 품에’(5/18) 기사는 훈훈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지방경찰청</p>	<p>최근 각급 기관들의 화면 시스템이 보강되면서 화면을 제공받는 경우가 적지</p>		○

	<p>화면자료로 보아 대전MBC 자체적으로 발굴한 미담기사로 보이지 않는다. 기자가 직접 발굴한 기사를 접하고 싶다(이승선)</p>	<p>않다. 이번 선행 사례도 예전 같으면 자칫 사라질 미담이었지만 기관의 화면 제공 시스템 덕분에 대전MBC 채널을 통해 확대 재생산될 수 있었고, 이로써 사회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든 긍정적인 사례로 판단된다.</p> <p>대전MBC 보도국은 다큐뉴스 ‘하늘동네 이야기’를 비롯해 ‘태안 유류 사고 10년 기록’ 등 낮은 곳에서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중요한 보도 가치로 삼고 있다.</p> <p>각종 미담 기사 발굴을 위해 노력 중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 요청드린다</p>			
<p>보도</p>	<p>뉴스데스크 지역뉴스 시간대에 ‘지역정보’ 외에 국제, 정치, 사회, 스포츠 등 뉴스정보가 자막으로 노출되고 있다.</p> <p>조사해 보니 부산, 대구, 광주MBC 등은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 뉴스 스크롤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지역뉴스 정보의 뉴스 스크롤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뉴스 시간대에 국제, 전국 뉴스 등을 노출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해 보길 바란다(이승선).</p>	<p>지역방송의 역할은 지역 소식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지역 의제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여기에 지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또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p> <p>지역 소식만 전하는 지역방송이 아닌 다양화되고 세분화되는 지역민의 정보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지역방송으로 역할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생각해서 <전국과 국제 하단>을 송출 하고 있다. 지역 시청자를 위한 위원님의 발전적인 제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뉴스에 반영하도록 하겠다.</p>			
<p>보도</p>	<p>지난 회의에 영상 취재물에 관한 영상 바이라인 제공을 제안했었다.</p> <p>답변에 본사도 영상 바이라인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대전MBC도 통일성을 갖추기 위한 일환으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본사의 상황을 알아보니 2012년 8월 MBC 조직개편이 있었고 이 때, 영상취재 1, 2부 시사영상부 등이 속한 보도영상 부문이 10여개 부서로 분산 배치되었다.</p> <p>회사의 입장은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영상취재업무를 현업 취재부서로 전진 배치한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MBC 영상기자회는 “파업 참여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였다. 2013년 8월 김장겸 보도국장은 보도국 편집회의에서 “촬영 편집기자 등 네임슈퍼를 삭제”하라고 지시를 하였다</p> <p>현재 부산, 대구, 광주MBC 등에서도 영상취재, 영상편집, CG 등 바이라인이 제공되고 있다. 영상제작 담당자의 책임의식, 업무 보람, 영상과 인격권 유의, 시청자의 영상정보에 대한 알 권리 등의 관점에서 볼</p>	<p>대전MBC의 경우 영상부는 보도국이 아닌 편성국 소속이다.</p> <p>바이라인의 경우 MBC 본사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이다.</p>			<p>○</p>

	때 영상 바이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이승선).			
기타	대전MBC 기사를 검색해 보니 ‘노사갈등’에 관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노사 현안 문제들이 지역사회에는 어떻게 비쳐주고 있고 조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노사 함께 성찰할 필요가 있겠다. 원만하게 처리되어 노사화합이 되면 좋겠다(송길현).	노와 사가 함께하여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는 채널로 발전하도록 더욱 힘쓰겠다.		
교양	‘전국이 보인다’ 프로그램을 통해 유익한 생활정보를 접한다. 옥의 티라면 인터뷰한 사람 자막처리가 시청할 때 편안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름을 가운데 위치에 처리를 하니 보기에 안좋다. 화면 중앙부 아닌 곳으로 자막처리 하면 좋겠다(정철상).	의견에 공감한다. 시정토록 하겠다.	○	
교양	대한민국 벤처의 신화 이민화 교수(토크&조이)편은 섭외도 좋았고 강의 내용도 좋았다. 4차산업 혁명에 관해 알기 쉽게 잘 설명을 해주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본다(정철상).	이민화 교수는 어렵게 섭외되었다. 최근 화두인 4차 산업혁명의 최전선 전도사로서 어려운 용어를 아주 쉽게 잘 전달해 주어 시청자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	
보도	대덕연구단지과 대전시민들과 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과학을 통해 대전시민과 더욱 가까워지면 좋겠다. 얼마 전 대흥초등학교 특강이 있어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잊지 못한다. 과학특구와 연계된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뉴스에서도 과학과 관련된 내용들이 보다 활성화되어 소개되면 좋겠다(함진호).	현재 대전MBC 보도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기획뉴스를 꾸준히 제작하고 있다. 대덕특구와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보도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	
교양	지역에서도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 국내에 외국인 153만 명 중 유성에만 6,000여 명이 거주한다. 거주 외국인을 입국 목적별로 살펴보면 유학이 43.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연구교류 12.6%, 결혼 12.4% 등 순서로 나타났다. 2개의 국립대(충남대, 카이스트)가 있기 때문에 유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두 대학이 있는 공동과 어은동 지역에는 45.8%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연구 분석이 있다. 교류 목적과 관련해서는 관내 대덕특구가 있어 거주 외국인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외국인이 관심을 가질만한 프로그램에 영어자막을 넣어보면 어떨까?	좋은 의견이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방송의 외연확장, 외국인에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영어자막은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 하지만 영어자막 방송을 위해선 새로운 인력의 총원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좀 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	○	

	<p>다른 방송사와 차별화할 수도 있고 외국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도 시청자복지의 외연화를 꾀할 수 있다고 본다(신성철)</p>				
--	--	--	--	--	--

